

2025년 05월 29일 (목) Signal Eve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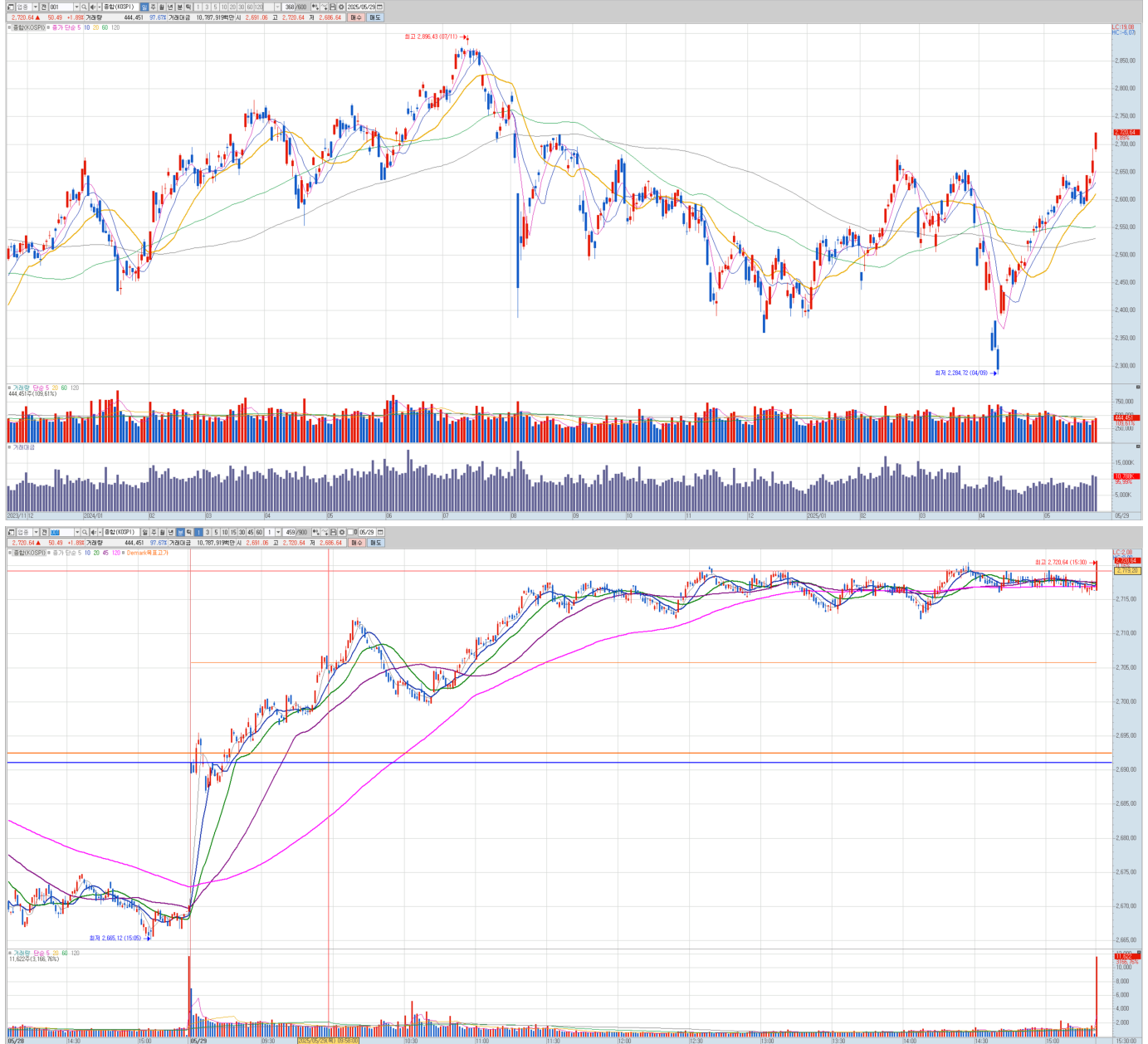


시그널리포트
investment intellig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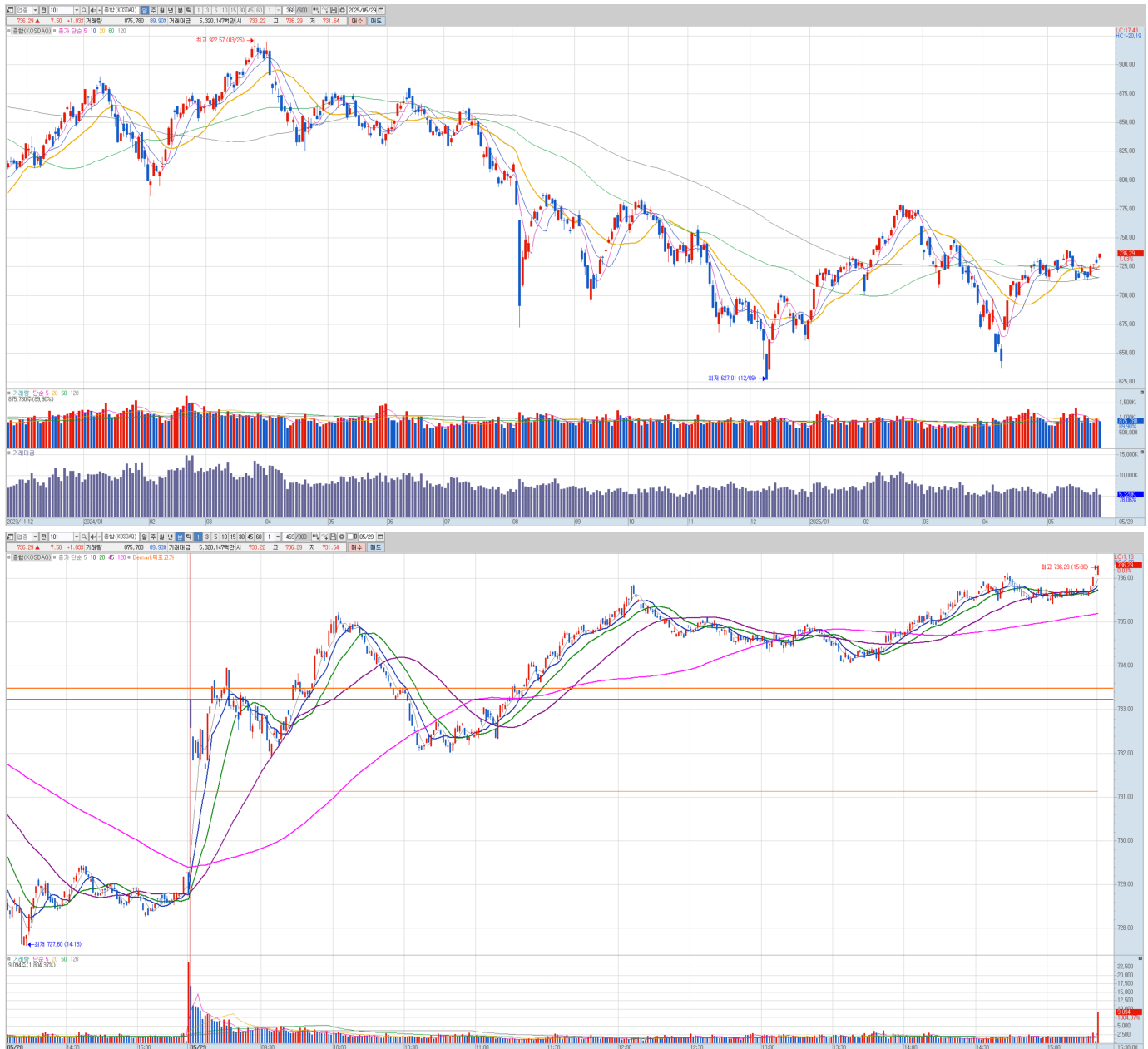
시그널리포트는 인공지능으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증시 분석 서비스이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구독자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공유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시그널리포트의 내용은 주식의 매도, 매수 등을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매매는 본인의 판단으로 하십시오.

2025년 05월 29일 (목) - Signal evening

▶ 코스피 지수 2702.64(+1.89%)



▶ 코스닥 지수 736.29(+1.03%)



[05월 29일 (목) 시장 주도 종목 - to the DEEP] (단위: 억)

< 상법 개정 >

●지주사 관련주: 크라운해태홀딩스 (+19.97%)(270) / 서연 (+18.05%)(461) / 원익 (+13.24%)(89) / 코오롱 (+17.78%)(943) / 롯데지주 (+11.74%)(408) / HD현대 (+11.26%)(1495) / 한화 (+10.22%)(1019) / LX홀딩스 (+9.58%)(138) / 한국금융지주 (+9.06%)(549) / 두산 (+8.63%)(1571) / SK (+8.51%)(1689) / LG (+6.90%)(649)

SK증권 "지주사 주가 고공행진...대선 앞두고 정책 기대감"

지주회사 주가 상승의 배경에는 대선을 앞둔 여야의 증시 부양 공약이 자리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주충실의무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 활성화, 쪼개기 상장 시 기존 주주 신주 우선배정,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주재 해외 기업활동(IR) 개최, 법인세·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배당소득세 개편 등을 통한 기업 친화적 정책을 선보였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정책적으로 지주회사 할인 요인 축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PBR도 점진적 상승이 예상된다"며 "밸류에이션 매력과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이 높은 지주회사들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대웅 (+29.99%)(185)

대웅제약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 간 지방증 유병률도 낮춰"

[특징주] 대웅 상한가, 대웅제약 당뇨병 치료제 "지방간 유병률도 낮춰" 연구결과 발표에 '주목'

대웅은 대웅제약의 지주회사로 대양제약의 지분 52.29%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HS효성 (+29.80%)(109), 효성 (+11.33%)(162)

[특징주] 지주사 HS효성, 배당수익률 최대 200% 기대에 '상'

HS효성, 배당가능이익 급증...자회사 실적 개선도 기대-IBK

이동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 "이익잉여금이 2024년 말 190억원에서 2025년 1분기 3190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며 배당가능이익이 급증했다"며 "동사는 증가한 이익잉여금을 향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 연구원은 또 "만약 3000억원 전액을 감액배당으로 지급한다면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별도 기준 부채비율은 12.2%에서 27.0%로 상승하며 여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을 유지할전망"이라며 "이 경우 이론적으로 배당수익률은 최대 약 200%에 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래에셋증권 (+23.21%)(2939) / 상상인증권 (+29.98%)(103) / 유진투자증권 (+16.58%)(227) / DB증권 (+10.12%)(28) / LS증권 (+10.05%)(108) / SK증권 (+9.40%)(152) / 한화투자증권 (+8.39%)(233) / 유안타증권 (+8.07%)(75) / 교보증권 (+7.59%)(29) / 키움증권 (+6.86%)(456)

"코스피 5000시대 열겠다" 이재명 한마디에 증권주 들썩[특징주]

미래에셋증권, 가상자산 전담 별도법인 설립 추진

(25.05.27)증권주, 호실적·정책 수혜 '겹호재'에 뿔뿔...2분기 기대감도 솔솔

증권업계는 거래대금 증가와 브로커리지 수익 개선 등이 동반되며 2분기에도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자본시장 선진화,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등 성장동력 확보 등 (증권주 강세) 요인이 많다"며 "전 부문 수익 확대가 기대되며 그 중에서도 IB부문의 수익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 제21대 대선 >

●삼릉물산 (+29.95%)(131) / 진영 (+9.30%)(160) / 에코플라스틱 (+8.83%)(921) / 세림B&G (+7.02%)(124)

[단독] 생분해 플라스틱 정책기반 만든다... 이재명과 맞손

업계에 따르면 한국화학산업협회와 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이재명 후보 직속 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적용 대상과 사용처를 선정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EL724 등 환경표지와 퇴비화 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적용 물품을 지정해 공공기관 우선 구매와 민간 인증 연계로 수요를 창출, 국내 시장의 확대를 위해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상지건설 (+2.56%)(1516) / 동신건설 (+13.55%)(132) / 형지글로벌 (+5.67%)(240) / 이스타코 (+14.75%)(72)

이재명 43~49%, 김문수 34~36%, 이준석 9~12%... 공표 금지前 마지막 여론조사

김문수, 이준석 찾아갔지만 만남 불발...단일화 사실상 무산

< 전력 / 에너지 >

●두산에너지빌리티 (+6.03%)(5995) / 현대건설 (+10.03%)(2352)

[단독] 원자력연구원, 美 SMR 시장 진출 컨설팅 착수

[넥스트 이코노미] '원전서 풍력까지' 두산에너지빌리티, 빗보는 포트폴리오

"전력이 승패 좌우" 원전 뛰어드는 빅테크

미국 정부가 원전 부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이 같은 추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빅테크들은 소형모듈원전(SMR)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 기간이 짧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이다. 구글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카이로스파워와 협력하고 있다. 오픈AI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SMR 개발 스타트업 오클로와 협업했다. 헬륨가스를 냉각제로 사용하는 SMR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 솔트포스는 선박 형태의 부유식 원전에 SMR을 탑재하는 방식을 연구 중이다. 빌 게이츠 MS 창업자, 피터 틸 팰런티어테크놀로지 회장, 데이비드 헬가슨 유니티 공동창업자 등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솔트포스에 투자한 게이츠는 직접 SMR 기업인 테라파워를 설립하기도 했다. 테라파워는 345MW급 소듐냉각고속로를 개발하고 있다. 테라파워는 미국 에너지부의 지원을 받아 와이오밍주에 첫 원전을 건설 중이며 2030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연평균 14.7% 증가해 2030년에는 현재의 두 배 이상인 945테라와트시(TWh·1TWh는 한국 약 28만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전력 소비량(592TWh)의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태웅 (+13.92%)(1146)

(25.05.27)[특징주] 태웅, 1만파이 초대형 단조 독자적 구축 부각

(25.05.23)[특징주] 태웅, 국내 최초 300MW급 SMR 부품 수주...트럼프 행정명령 앞두고 상승세

올해 2월 태웅은 캐나다에 국내 최초 300메가와트(MW)급 SMR 원전용 단조 부품을 계약을 체결했다. 동일 프로젝트로 SMR부품 추가 수주도 협의 중인 태웅은 글로벌 SMR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광명전기 (+14.21%)(210)

(25.03.19)광명전기, 한국수력원자력과 570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

(22.06.08)[특징주] 광명전기, 美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한수원·한전 방문... 고객사 부각

●일진전기 (+4.30%)(336) / 효성중공업 (+4.71%)(872)

IBK證 "일진전기, 북미 중심 수주잔고 확대...목표가↑"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일진전기의 1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0% 증가한 4574억원, 영업이익은 86.4% 늘어난 340억원을 기록했다"며 "전선 매출이 3815억원, 변압기 등 중전기 매출은 752억원으로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지역별로 미주와 아시아·호주 매출이 각각 전년 대비 236%, 56% 늘었고 유럽과 국내도 각각 875%, 13%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중전기 수주는 미국과 중동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향후 3년치 이상 변압기 공급 물량을 확보한 가운데 수주잔고 내 고마진 북미 비중이 70%를 상회하며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이스틸 (+5.05%)(222)

정부, 내달 알래스카 '에너지 콘퍼런스' 참석...실·국장급 참석 고려

하이스틸, 산업부 알래스카행에 64조 LNG 기대감 ↑...트럼프발 초대형 수혜주 부각 [특징주]

하이스틸은 강관 전문 제조업체로, 다양한 강관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영위

● 씨에스윈드 (+8.64%)(399)

블랙록, 재생·청정에너지 관련주 반등 기대..."美 핵심 전력공급원 될듯"

블랙록은 27일(미국 현지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AI(인공지능)의 성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블랙록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는 2030년까지 50~200% 증가할 것으로 관측돼 지난 15년간 정체됐던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태양광은 2026년까지 미국 발전 성장의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은 2024년 처음으로 석탄을 제치고 미국 에너지 믹스에서 우위를 점했다. 블랙록은 또 "청정에너지 섹터를 압박했던 금리 상승과 관세 등의 악재들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블랙록은 "장기적으로 청정에너지 주식은 강한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는 건설 속도가 빠르고 현재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삼성 / 반도체 >

● 팜트론 (+14.72%)(86)

(25.04.03)적자 전환 팜트론, HBM 장비로 돌파구 마련

HBM용 3D 검사장비인 8800WIR도 팜트론 수익을 견인할 것으로 주목받는다. 팜트론은 지난해 12월 국내 업체와 해당 장비에 대한 퀵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나 2분기 초에는 발주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800WIR은 기존 웨이퍼 패턴 검사 장비인 8800WI를 3D 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제품으로 웨이퍼 절단 전후로 3D로 흠집이나 휨 등을 검사한다. 해당 장비가 성공적으로 상용화될 경우 팜트론의 반도체 장비 사업 실적을 크게 견인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장비의 경우 기존 장비보다 단가가 두 배 이상 높은 만큼 매출이 발생할 경우 수익성과 마진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램테크놀러지 (+0.72%)(245)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 "유리기판 시제품 곧 생산...연내 2~3개사 공급 타진"

램테크놀러지, 삼성전기 美 빅테크 유리기판 샘플 공급에 TGV 식각액 공동개발사 부각

램테크놀러지는 불산 기반의 식각 조성물을 개발해 다수의 홀 크기를 정밀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으며, 현재 고객사 평가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해당 식각액은 단순 식각뿐 아니라 프로파일 제어와 식각 후 잔여물 제거 등 다양한 공정요구를 만족시키며, 기술적 독자성과 특허 기반을 갖추고 있다. 회사는 식각액 개발뿐 아니라 CMP(화학적 기계연마)·세정액 등 반도체 공정용 고부가 화학소재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유리기판 TGV 식각액 개발을 통해 패키징 소재 시장으로 본격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 BIO >

● 나이백 (+29.82%)(6)

(25.05.28)나이백, 펩타이드 기반 섬유증 치료물질 'NP-201' L/O...'6천억원 규모'

나이백은 미국 소재 제약바이오 기업과 펩타이드 기반 섬유증 후보물질(개발코드명 NP-201)에 대한 전 세계 개발 및 상업화 독점 권리를 이전하는 기술수출(L/O)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기술수출 계약의 총 규모는 4억3500만달러(약 5953억원)이며, 이중 계약금은 800만달러(약 109억원), 개발 단계에 따른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은 4억2700만달러(약 5843억원)다. 나이백은 NP-201의 상업화 성공 이후 누적 판매 마일스톤 달성 시 이후 60일 이내에 마일스톤을 수령할 수 있다. 또 상업화 로열티(경상 기술료)는 NP-201로 발생하는 순매출액의 4%로 설정됐다.

● **일신바이오 (+29.96%)(488) / 서린바이오 (+13.07%)(774) / 국전약품 (+18.65%)(373) / 그린생명과학 (+4.75%)(810)**

대만 보건당국 "8월초까지 코로나19 환자 171만명 달할 듯"

[특징주] 일신바이오 상한가, "여름휴가철 코로나19 확산 절정" 백신 관련주 '뭉치돈'

창원상 대만 위생복지부 질병관제서 서장은 "앞으로 2개월여간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오는 8월 초까지 코로나19 환자가 171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신바이오는 바이오 장비 제조업체로 동결건조기와 초저온냉동고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영하 80도 이하의 초저온 환경을 유지하는 냉동고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백신 및 바이오 샘플 보관에 필수적인 장비라 백신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 **수젠텍 (+9.07%)(726) / 휴마시스 (+5.16%)(283)**

코로나 '재유행' 솔솔...약국 해열제·키트 수요 증가

코로나 변이 'NB.1.8.1' 빠르게 확산...특징은?

5월 말 호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NB.1.8.1 변이가 아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다. NB.1.8.1은 지난 4월 말 홍콩과 중국에서 가장 흔한 코로나19 변종 중 하나로 꼽혔고 국내에서도 올해 2월 국내 최초 검출 이후 지속 증가해 21.2% 증가를 보였다.

● **진매트릭스 (+5.11%)(68)**

[특징주] 진매트릭스, 코로나 변이 대응 다중 진단 기술력 보유에 ↑

진매트릭스는 다중 표적 PCR 기술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여부에 관계없이 고정밀 탐지가 가능한 것이 강점이다. 이는 단일 유전자에 의존한 일부 진단키트와 달리 델타, 오미크론 등 변이 바이러스 확산 시에도 안정적인 진단 성능을 보장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기존 코로나 진단 제품의 CE 인증과 WHO 긴급사용승인(EUL) 등을 확보한 바 있으며, 중동·동남아시아·유럽 등지로 수출도 진행해왔다. 국내 질병관리청 및 다수 지자체에 공급 이력을 보유한 만큼, 향후 정부 차원의 진단키트 비축 확대 시에도 수혜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 개별주 >

● **카카오 (+5.52%)(2008)**

단독 알리바바-카카오 맞손...알리 '고덕지도'서 카카오 택시 잡는다

[단독] 오픈AI, 한국 사무소 채용공고 냈다...5년차 이상·6개 직무

앞서 오픈AI는 지난 26일 국내 법인을 공식 설립하고 조만간 서울에 첫번째 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사용자, 기업, 개발자 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파트너십까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카카오 등 국내 대표 IT 기업과 긴밀한 협업 관계를 이어오고 있어 적극적인 사업 확장이 예상된다.

●에스엠 (+7.43%)(498), 디어유 (+8.38%)(253) / 와이지엔터테인먼트 (+4.15%)(321)

SM·텐센트, 전방위 협력 강화... '한한령' 뚫는다

SM엔터테인먼트와 중국 최대 음악 플랫폼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협업에 나선다. 양사는 2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양사는 향후 2~3년 내 데뷔를 목표로 중국 현지 아이돌 그룹을 선보일 계획이다. SM은 캐스팅, 트레이닝, 프로듀싱 등 제작 전반을 맡는다. 텐센트는 현지 프로모션과 음반 및 음원 유통을 전담한다. IP 사업에서는 중국 내 실물 및 디지털 포토카드, 캐릭터 상품, 팝업스토어, 영상 콘텐츠 등을 공동 전개한다. 공연 분야에서는 2026년 홍콩에서 개최 예정인 '에스엠타운 라이브(SMTOWN LIVE)' 콘서트를 포함해 SM 아티스트들의 투어 협력을 강화한다. SM의 '비욘드 라이브(Beyond LIVE)' 기술을 활용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엔컴퍼니 (+18.68%)(320)

조현범 한국엔컴퍼니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 1심 징역 3년...법정 구속

조현범 한국엔컴퍼니 회장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이 2023년 3월 구속 기소한지 2년2개월 만이다. 한국엔컴퍼니는 타이어 제조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지주회사다.

●에브리봇 (+12.48%)(607)

에브리봇, SK와 세계최초 웰니스로봇 공동 개발..7월 양산 상용화 기대↑ [특징주]

움증권 오현진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에브리봇이 북미 주요 고객사용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납품으로 신규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오 연구원은 '에브리봇 성장의 핵심은 AI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부문'이라면서 "동사는 SK 계열사의 웰니스로봇에 탑재되는 AI 자율주행부 개발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4년 공동 개발에 착수한 이후 2025년 1·4분기 개발 용역 계약 체결 및 올해 하반기 양산 본격화를 전망한다"며 "해당 웰니스로봇 'A1'은 7월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5.05.29.(목) 한 장으로 보는 이브닝

#상법개정 #에너지 #BIO

▲ 코스피 2,720.64 (+1.89)

▲ 코스닥 736.29 (+1.03%)

상법 개정



크라운해태홀딩스 (+19.97%)
서연 (+18.05%)
원익 (+13.24%)
코오롱 (+17.78%)
롯데지주 (+11.74%)
HD현대 (+11.26%)
한화 (+10.22%)
LX홀딩스 (+9.58%)
한국금융지주 (+9.06%)
두산 (+8.63%)
SK (+8.51%)
LG (+6.90%)
대웅 (+29.99%) ▲
HS효성 (+29.80%) ▲
효성 (+11.33%)
미래에셋증권 (+23.21%)
상상인증권 (+29.98%) ▲
유진투자증권 (+16.58%)
DB증권 (+10.12%)
LS증권 (+10.05%)
SK증권 (+9.40%)
한화투자증권 (+8.39%)
유안타증권 (+8.07%)
교보증권 (+7.59%)
키움증권 (+6.86%)

제21대 대선

삼릉물산 (+29.95%) ▲
진영 (+9.30%)
에코플라스틱 (+8.83%)
세림B&G (+7.02%)
상지건설 (+2.56%)
동신건설 (+13.55%)
형지글로벌 (+5.67%)
이스타코 (+14.75%)

전력 / 에너지

두산에너지리티 (+6.03%)
현대건설 (+10.03%)
태웅 (+13.92%)
광명전기 (+14.21%)
일진전기 (+4.30%)
효성중공업 (+4.71%)
하이스틸 (+5.05%)
씨에스윈드 (+8.64%)

삼성 / 반도체

팜트론 (+14.72%)
램테크놀러지 (+0.72%)

개별주

카카오 (+5.52%)
에스엠 (+7.43%)
디어유 (+8.38%)
와이지엔터테인먼트 (+4.15%)
한국엔컴퍼니 (+18.68%)
에브리봇 (+12.48%)

BIO

나이백 (+29.82%) ▲
일신바이오 (+29.96%) ▲
서린바이오 (+13.07%)
국전약품 (+18.65%)
그린생명과학 (+4.75%)
수젠텍 (+9.07%)
휴마시스 (+5.16%)
진매트릭스 (+5.11%)

